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인탑스 (049070)

케이스를 넘어 로봇을 조립하다

체크포인트

- 인탑스는 IT디바이스, 가전제품 어셈블리, 자동차부품, 금형 및 기타 사업 등을 영위. 오랜 기간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며 확보한 금형·사출 및 조립 기술을 기반으로 ODM/OEM/EMS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2025년 하노이 공장의 수출 저하로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 공정 안정화와 수출 회복 확인. 2026년 매출액 6,032억원(YoY +2.1%), 영업이익은 118억원으로 흑자전환할 전망. 영업이익의 회복과 순금융수익 197억원을 바탕으로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207억원(YoY +27.7%)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다만 3분기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바수기에도 IT디바이스 부문 흑자기조 유지 여부가 핵심
- 2026년 하반기 로봇 위탁생산과 대형 FIM 전장부품 공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로봇-드론-전장 등 신사업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 두 차례에 걸친 자기주식 소각과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도 긍정적이며, 2026년 예상 P/B 0.4배로 로봇·FIM 매출과 금융수익이 아닌 본업의 이익 성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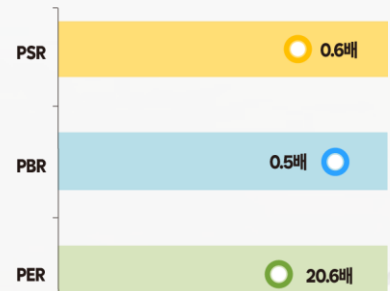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휴대폰 케이스에서 종합 EMS 기업으로 확장

인탑스는 금형·사출 및 조립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용 케이스를 생산하는 기업. 2025년 IT디바이스 매출 비중은 70.4%이며, 베트남 생산법인이 연결 실적의 핵심.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생산을 통해 축적한 양산 및 품질관리 역량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과 로봇 등으로 EMS 사업영역을 확대

하노이 공장 수율 정상화로 흑자전환 전망

2025년에는 하노이 공장의 수율 저하와 비용 증가로 11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2026년 1분기 공정 안정화와 수율 회복이 확인됐으며, 연간 매출원가율은 전년 93.6%에서 90.8%로 하락할 전망. 2026년 매출액은 6,032억원(+2.1% YoY), 영업이익은 118억원으로 흑자전환 추정. 다만 비수기인 2~3분기에도 IT디바이스 부문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는지가 핵심

로봇FIM 실적 가시화가 재평가의 열쇠

베어로보틱스의 서빙로봇과 현대차·기아의 웨어러블 로봇 양산 경험을 보유. 2026년 하반기에는 신규 웨어러블 로봇 위탁생산을 시작하고, 구미 4공장을 기반으로 대형 FIM 전장부품 사업도 확대할 전망. 2026년 예상 P/B는 0.5배로 자산가치 대비 낮은 수준이나, 로봇FIM 매출과 금융수익이 아닌 본업의 이익 성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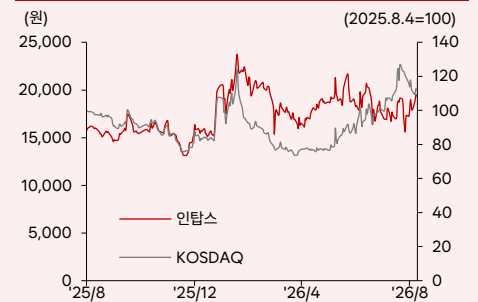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0,980	5,774	6,147	5,908	6,032
YoY(%)	4.4	-47.4	6.5	-3.9	2.1
영업이익(억원)	1,418	183	38	-113	118
OP 마진(%)	12.9	3.2	0.6	-1.9	2.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004	277	215	162	207
EPS(원)	5,836	1,608	1,251	942	1,249
YoY(%)	33.5	-72.4	-22.2	-24.7	32.6
PER(배)	4.8	16.8	13.3	21.3	15.8
PSR(배)	0.4	0.8	0.5	0.6	0.5
EV/EBITDA(배)	1.6	7.9	7.1	18.5	3.1
PBR(배)	0.8	0.7	0.4	0.5	0.5
ROE(%)	17.4	4.4	3.3	2.4	3.1
배당수익률(%)	3.1	0.9	1.2	1.0	1.1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13)	19,780원
52주 최고가	23,750원
52주 최저가	13,150원
KOSDAQ (8/13)	861.37p
자본금	86억원
시가총액	3,25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9억원
외국인지분율	7.44%
주요주주	김근하 외 6 인 40.7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4.8	-2.1	23.9
상대주가	6.5	25.7	17.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외장 부품 전문 기업 인탑스

인탑스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과 표면 처리를 기반으로 완제품 업체에 외장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1981년 신영화학공업사로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1997년 인탑스(주)로 상호를 변경한 뒤, 200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기존 IT 디바이스 부품 사업에서 벗어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2016년 커넥터와 램프 등을 생산하는 (주)미래를 인수하며 자동차 부품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같은 해 베트남 호치민에 자회사를 설립해 삼성전자향 냉장고와 세탁기 내외장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에는 안산사업장을 신설하며 전자부품용 방열 소재사업에 진출했다. 사업다각화 덕분에 IT디바이스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19년 83.0%에서 2025년 70.4%로 12.6%p 하락했고, 같은 기간 자동차 부품은 10.4%에서 15.3%, 가전제품 ASS'Y는 5.9%에서 11.7%로 높아졌다.

인탑스의 2025년 매출액은 5,908억원(YoY -3.9%), 영업손실 113억원(YoY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IT 디바이스 4,160억원(YoY -1.4%), 가전제품 ASS'Y 691억원(YoY -14.3%), 자동차 부품 904억원(YoY +1.6%), 금형 및 기타 49억원(YoY -68.1%), 유통 및 서비스 103억원(YoY +36.7%)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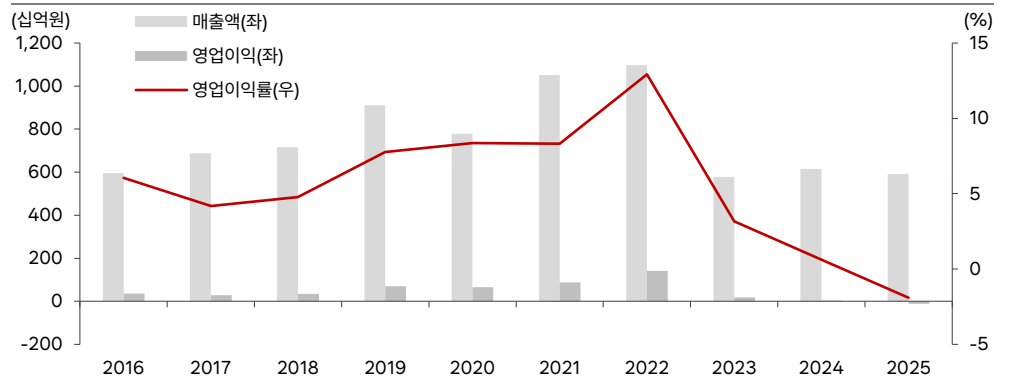
2025년 지역별 매출 비중은 동남아시아가 70.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탑스가 IT디바이스와 가전제품에 쓰이는 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이 부품을 받아 완제품을 조립하는 고객사의 거점이 베트남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최종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에서 전체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 수준을 조립하며, 호치민 가전복합단지에서는 TV 등 생활가전을 생산한다. 이에 맞춰 인탑스는 현지 법인인 인탑스베트남, 플라텔비나를 두고 있으며,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현지 고객사 생산법인으로 곧바로 공급된다.

주요 연혁

연월	주요 내용	연월	주요 내용
1981.06	신영화학공업사 설립(플라스틱 사출성형)	2019.07	(주)미래 잔여 지분 취득, 100% 자회사 전환
1997.07	인탑스(주)로 상호 변경	2020.10	CMF 라이브러리 '히다(Hida lab)' 오픈
2001.12	인탑스 천진 전자유한공사 설립(자동차 부품)	2021.12	아이티에너지 지분 취득(연료전지 발전)
2002.02	코스닥시장 상장	2022.11	안산사업장 설립, 전자부품용 방열 소재사업 진출
2009.11	인탑스베트남 설립(2011.11 가동)	2024.01	인탑스 인디아 설립
2016.03	플라텔비나 설립(베트남 호치민, 가전제품)	2025.02	최대주주 변경(김재경 → 김근하, 증여)
2016.07	(주)미래 지분 71.3% 인수, 자동차 부품 진출	2025.04	구미 FIM 전용 4공장 완공
2018.04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설립(신기술사업금융업)	2026.06	김현량 대표이사 선임, 자기주식 73만5,393주 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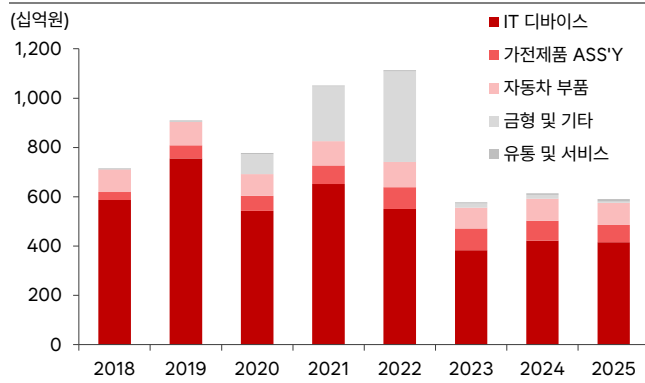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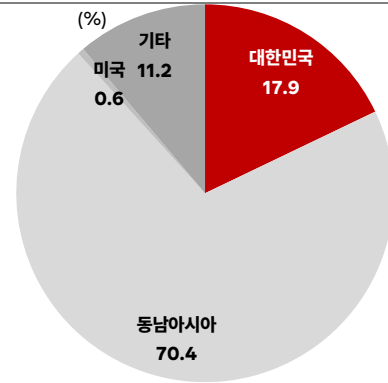
자료: 인탑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인탑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기준 지역별 매출액 비중



자료: 인탑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및 자회사

오너 지배 아래 전문경영인 체제

2026년 8월 초 확인 기준 최대주주는 김근하 전 대표로 296만 4,489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6년 6월 완료된 1차 자기주식 소각을 반영한 지분율은 18.01%다. 김재경 회장 14.95%, 가족회사 플라텔 3.57%, 인탑스평산장학재단 3.13%, 김수진 0.94% 등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0.75%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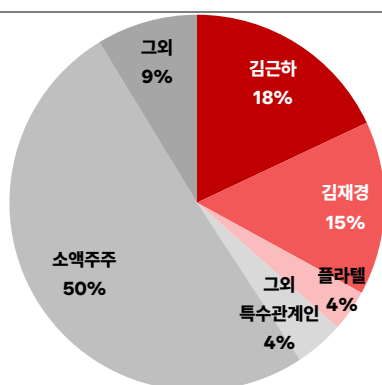
김재경 회장은 2025년 2월 보유주식 67만 800주를 자녀인 김근하와 김수진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김근하의 지분율은 당시 14.24%에서 17.24%로 상승해 최대주주가 됐으며, 이후 플라텔의 장내매수와 자기주식 소각으로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졌다. 김근하는 플라텔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통해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사실상 최종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2026년 6월 김근하 대표가 사임하고 내부 출신 전문경영인인 김현량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근하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영은 김현량 대표가 담당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일부 분리된 구조로 전환됐다. 회사는 6월 보유 자기주식 73만 5,393주를 소각해 발행주식 수를 1,720만주에서 1,646만 4,607주로 줄였다. 이어 1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고, 취득 주식 72만 2,307주를 8월 10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변경상장까지 반영되면 발행주식 수는 1,574만 2,300주로 감소한다.

베트남 법인이 이끄는 연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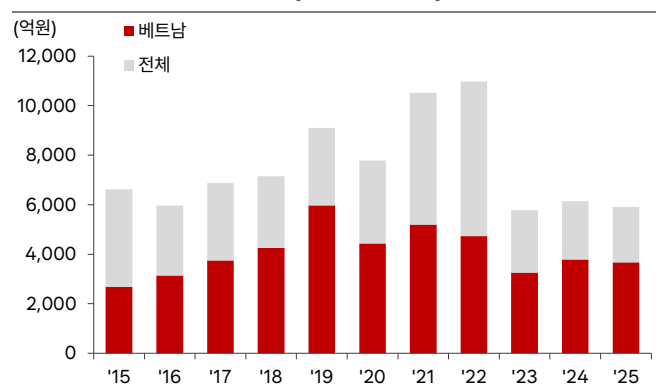
2026년 3월 말 기준 연결 종속회사는 9개다. 연결 자산과 사업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자회사는 인탑스베트남과 플라텔비나다. 인탑스베트남은 삼성전자형 스마트폰 부품과 신규 EMS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제조법인으로, 연결 실적의 변동성이 가장 큰 자회사다. 플라텔비나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삼성전자형 냉장고·세탁기 내·외장재를 생산한다. 인탑스 천진전자와 미래는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탑스인베스트먼트는 신기술기업과 제조업 관련 펀드 투자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 기능을 수행한다.

1차 자기주식 소각을 반영한 주주구성



주: 2026년 6월 29일 기취득 자기주식 73만 5,393주를 소각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베트남 법인의 매출 기여도는 62%(연결 제외하기 전)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별 설명 및 주요 보유 기술

동남아향 휴대폰 부품이 메인

2025년 연결 매출액은 5,908억원이며,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IT디바이스 70.4%, 자동차 부품 15.3%, 가전제품 ASS'Y 11.7%, 유통 및 서비스 1.7%, 금형 및 기타 0.8%다. 2026년 1분기에도 IT디바이스 비중이 73.2%를 기록해 모바일 중심의 사업구조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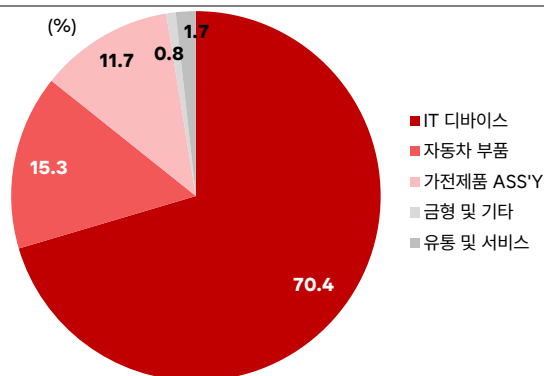
IT디바이스 부문은 기초가공과 내·외장 부품 조립을 완료한 휴대폰 ASS'Y, 안테나 및 차폐 부품 등을 생산하며 핵심 고객사는 삼성전자다. 주요 생산거점은 국내 구미사업장과 베트남 박닌성의 인탑스베트남이다. 스마트폰 모델별 금형 제작과 사출, 코팅 및 조립을 일괄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 일정과 생산물량, 공장 수율이 매출과 수익성을 결정한다.

로봇과 전자기격표시기 등 신규 EMS 제품도 공시상 IT디바이스 등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인탑스는 베어로보틱스의 서빙로봇을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웨어러블 로봇 제조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로봇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고객사가 설계한 제품에 대해 부품 조달, 금형·사출, 조립, 품질관리 및 양산을 담당하는 제조 파트너에 가깝다. 따라서 로봇 사업의 경쟁력은 완제품 기술보다 다양한 부품을 통합해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능력과 기존 고객 레퍼런스에 있다.

자동차 부품 부문은 램프, 커넥터, 실린더 커버와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등을 생산한다. 국내 자회사 미래와 구미사업장, 중국 천진법인이 생산을 담당하며 현대·KHL 등이 주요 고객사다. 휴대폰 부품보다 제품 교체주기가 길고 고객 승인 및 품질인증 절차가 필요하기에 신규 수주가 양산으로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구미 FIM 전용 4공장은 인쇄부터 필름 성형, 사출 및 출하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와 내장 디자인 부품 대응에 활용될 전망이다. FIM 공법은 도장과 별도의 장식 부품을 줄이면서 복잡한 무늬와 질감을 구현할 수 있어 제품 경량화와 공정 단축에 유리하다. 인탑스가 기존 휴대폰 외장재에서 축적한 사출 및 표면처리 경험을 자동차 전장부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025년 사업부별 매출 비중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탑스 국내외 사업장

국내사업장

안양	본사, R&D센터, 디자인팀
수원	IoT, 셋업박스, 라이프스타일
안산	방열/절연시트, 공정용 필름
광주	가전부품
구미	스마트폰, 로봇, 의료기기(자동차부품)
김천	자동차부품(배터리케이스, 커넥터)

해외사업장

천진	자동차인포테인먼트시스템
하노이	스마트폰, 노트북, 액세서리
호치민	TV, 냉장고, 세탁기 부품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성숙한 스마트폰 시장, 중저가폰 수요가 핵심

신흥국 스마트폰 수요가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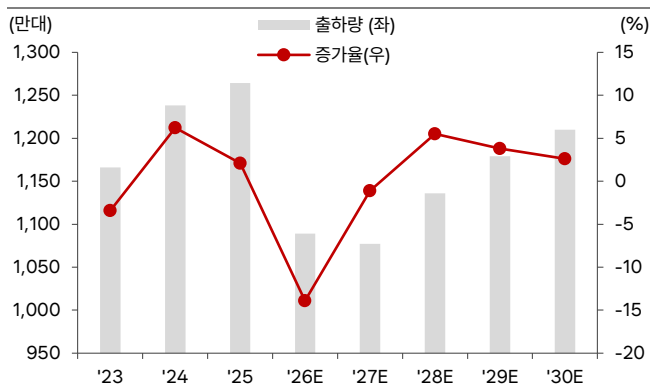
인탑스의 주력인 IT디바이스 사업은 스마트폰 케이스와 안테나·차폐 부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주요 제품은 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용 케이스다. 스마트폰 케이스 산업은 금형 설계, 사출성형, 표면처리 및 조립 능력이 요구되며, 고객사의 품질 기준과 납기 대응력, 현지 생산기반 및 원가경쟁력이 주요 수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26년 메모리 공급 부족과 원가 부담 심화로 큰 폭의 위축이 예상된다. IDC는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9% 감소한 약 10.9억대로, 스마트폰 시장 역사상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와 운송비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원가 부담을 높이면서 출하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7년에도 출하량은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메모리 수급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2028년에는 5.5% 반등하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200달러 이하 중저가 스마트폰의 출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중저가 제품 비중이 높은 일본·중국 제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6년 출하량 역시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메모리 조달과 프리미엄·중가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인탑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보다는 동남아·인도 등 신흥국의 보급형 스마트폰 수요와 삼성전자의 중저가 모델 생산량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중저가 스마트폰은 제품당 부가가치는 낮지만 대량 생산에 따른 안정적인 양산 능력과 원가경쟁력이 중요하다. 다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거나 삼성전자의 생산물량이 다른 지역 또는 공급사로 이전될 경우 가동률과 매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은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량과 고객사 내 점유율, 베트남 생산법인의 가동률이 핵심 실적 변수로 판단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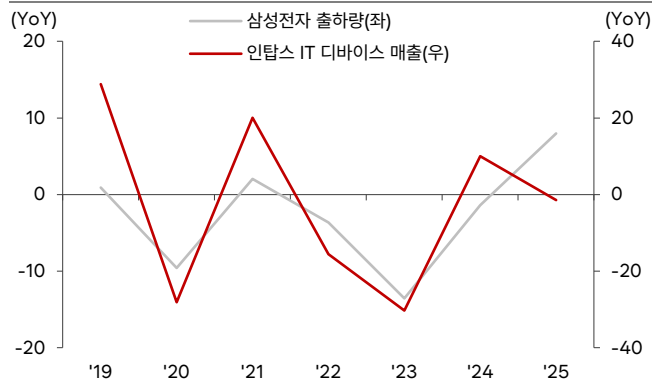
자료: IDC,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A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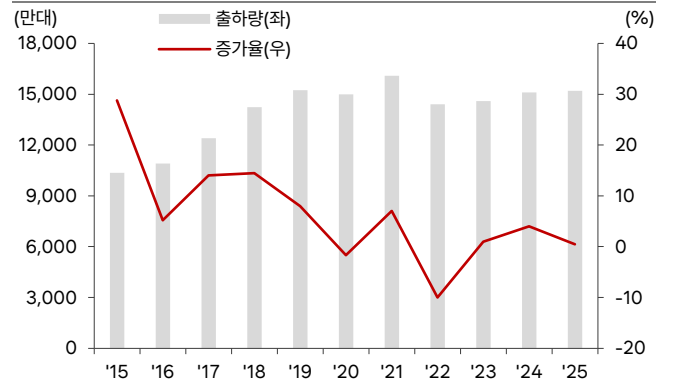
자료: 삼성전자,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과 인탑스 IT 디바이스 매출액 증가율



자료: 인탑스,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주: 스마트폰 제조사가 인도 시장으로 공급하여 보낸 스마트폰의 총 수량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휴대폰 케이스 산업: 업체 간 물량 확보 경쟁

출하 감소 속 점유율 방어에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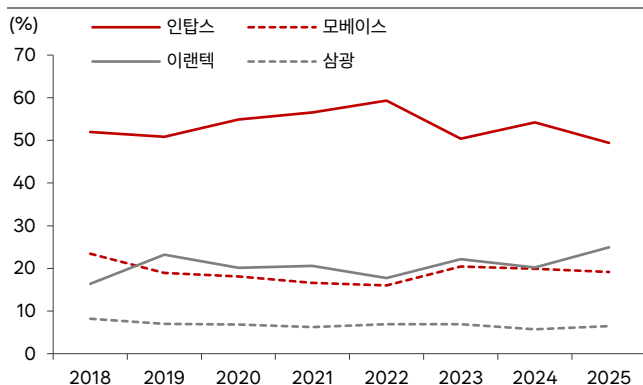
휴대폰 케이스는 스마트폰에 기본 장착되는 후면 커버와 프레임, 안테나·차폐부품 및 버튼 등을 조립한 케이스 ASS'Y를 의미한다. 주요 공정은 금형 설계, 사출성형, 도장·증착·인쇄 등 표면처리와 조립·검사로 구성된다. 업체별 관련 매출이 정밀부품이나 모듈·EMS 사업에 포함돼 공시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시장규모와 점유율 자료는 제한적이다.

케이스 제조사는 고객사의 품질 인증을 거쳐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금형 제작과 시제품 생산에 참여한다. 장기간의 공급 이력과 고객사 생산기지 인근의 양산시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승인업체 간에는 신규 모델 수주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외관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인 만큼 색상과 단차, 표면 불량 관리 능력뿐 아니라 출시 일정에 맞춰 생산량을 확대하는 대응력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인탑스와 모베이스, 이랜텍, 삼광 등이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경쟁한다. 모베이스는 베트남과 인도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며, 이랜텍도 영국에서 플라스틱·메탈 케이스와 스마트폰 반제품을 생산한다. 비상장사인 삼광은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용 케이스를 공급한다. 고객사와 생산지역, 주력 제품군이 유사해 이들 업체가 인탑스의 직접적인 경쟁사로 판단된다. 글로벌 경쟁사로는 플라스틱·알루미늄 케이스를 생산하는 중국의 Tongda Group이 인탑스와 비교적 유사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고객사와 생산지역에 따라 부품 공급업체가 달라, 이들 업체 모두가 인탑스와 동일한 휴대폰 모델에서 직접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다.

케이스 업체의 실적은 전체 시장점유율보다 수주한 모델의 판매량과 모델별 공급 비중, 생산라인의 가동률 및 수율에 좌우된다. 판매량이 많은 모델에서 높은 공급 비중을 확보하면 고정비 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신규 모델 수주가 줄거나 고객사가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가동률과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 인탑스는 베트남 생산기반과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간의 공급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공급점유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향후 베트남 법인의 매출 추이와 주요 모델 배정 여부를 통해 고객사 내 경쟁력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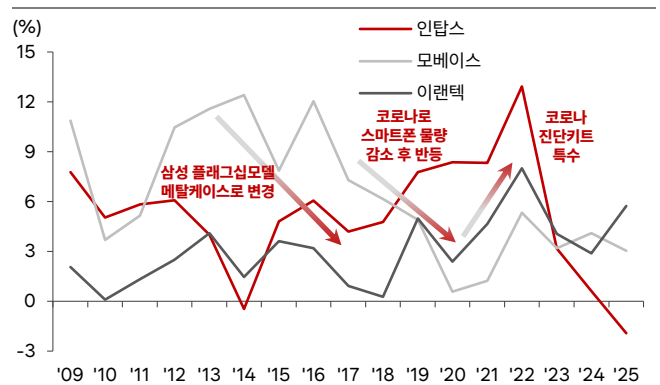
국내 플라스틱 스마트폰 케이스 ASS'Y 시장점유율 추정



자료: 각 사,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이랜텍을 제외한 나머지 3사는 플라스틱 케이스 중심. 이랜텍은 메탈 케이스도 일부 생산함

업체별 OPM 추이



자료: 각 사,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전동화·전자화가 견인하는 자동차 부품

전장부품 비중 확대가 중장기 성장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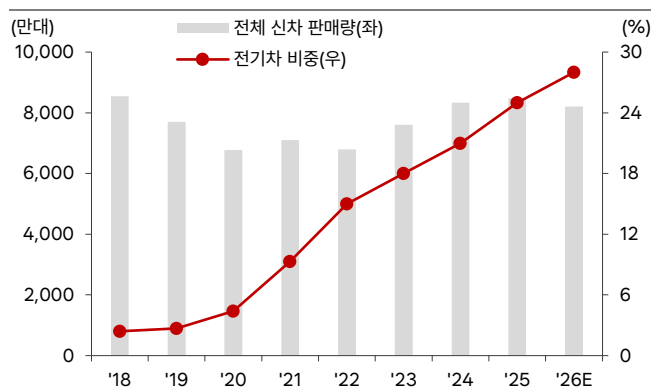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 생산량에 연동되는 전통적인 물량산업이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ADAS 보급으로 차량 내 전장부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엔진·변속기 관련 기계부품이 줄어드는 반면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커넥터, 센서 및 조명 등 전기·전자부품의 중요성이 높다.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속도 조절로 단기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으나, 차량당 전장부품 탑재량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품 수요를 지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은 스마트폰 부품보다 제품 개발과 인증 기간이 길고, 신규 차종 주주 이후 통상 수년에 걸쳐 매출이 발생한다. 높은 품질 기준과 이력관리 능력이 요구돼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완성차 생산계획 변경이나 신차 출시 지연 시 매출 인식도 늦어질 수 있다.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익성 부담 요인이다.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6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며 다시 역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5년 약 25%에서 2026년 약 2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축은 완성차 물량 증가보다 전동화에 따른 차량당 부품가치 상승으로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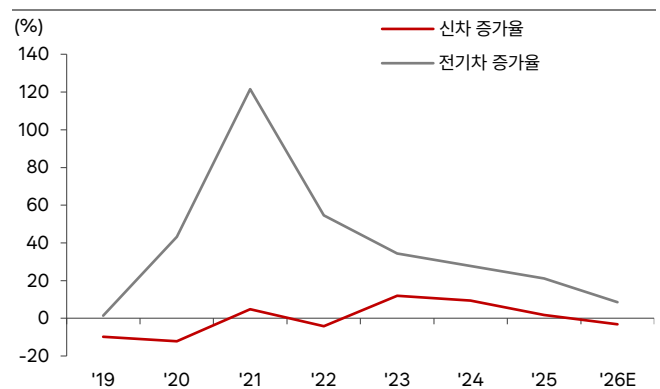
인탑스는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사로, 자동차 부품사업에서는 리어램프 생산 비중이 높다. 기존 금형·사출 및 조립 역량을 기반으로 다른 완성차 브랜드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 신기술 개발을 전기차용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FIM(Film Insert Molding)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용 전면 그릴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차는 냉각용 라디에이터 그릴의 필요성이 낮은 대신 전면부가 브랜드 디자인과 조명·센서 기능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FIM 전면 그릴의 신규 차종 적용과 고객사 다변화 여부가 자동차 부품사업의 성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글로벌 신차 판매량 및 전기차 비중



자료: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은 8.5%로 전망



자료: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레퍼런스로 증명한 로봇 양산 경쟁력

로봇 개발사가 찾는 양산 파트너

인탑스는 로봇의 핵심 소프트웨어나 구동부를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고객사의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 파트너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생산을 통해 축적한 금형 설계, 사출성형, 정밀가공, 조립 및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조립·검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다. 로봇은 다수의 부품과 센서가 결합되는 만큼 시제품을 대량 생산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품 간 정합성과 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조 역량이 중요하다.

인탑스는 베어로보틱스의 서빙로봇 '서비'와 '서비플러스'를 위탁생산하며 서비스 로봇 양산 경험을 확보했다. LG전자는 2025년 베어로보틱스 지분 51%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존 클로이 중심의 상업용 로봇 사업을 베어로보틱스와 통합했다. 이에 따라 베어로보틱스가 서빙로봇에서 물류·배송 등으로 제품군과 판매처를 확대하면 인탑스의 생산 물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LG전자의 향후 생산전략과 인탑스의 공급 범위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서비스 로봇에 이어 웨어러블 로봇으로도 생산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인탑스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판매하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솔더'의 생산을 담당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엑스블 솔더의 KS 인증 과정에서 인탑스의 생산체계와 품질관리 적정성이 함께 심사됐으며, 인탑스는 부품 가공부터 조립·품질검사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베어로보틱스의 서빙로봇



자료: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3월, 현대차·기아-인탑스, KS인증 수여



자료: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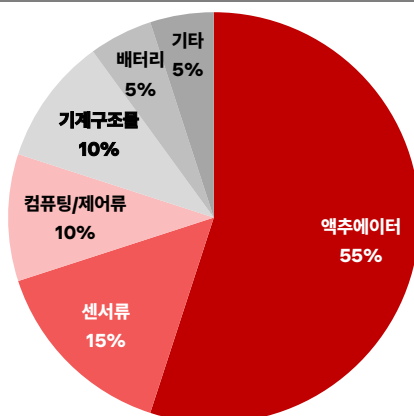
로봇 EMS 경험이 만드는 확장성

로봇 시장은 서빙·웨어러블 로봇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로 확장될 전망이다. 인탑스는 서빙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을 양산하며 정밀 조립, 센서 탑재, 내구성 검증 및 품질관리 경험을 축적했다. 스마트폰과 전자부품 생산 과정에서 확보한 금형·사출 기술과 제조 데이터 관리 역량도 경쟁력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앞서 언급한 현대기아차 외에 국내 웨어러블 로봇 개발사의 제품 위탁생산도 시작할 예정으로, 양산 품목과 고객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로봇 외장부품의 BOM(Bill of Materials, 부품명세서) 비중은 제한적이나, 부품 조달부터 조립·검사까지 담당하는 턴키 EMS로 공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제품당 매출 기회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실적 기여도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시장 형성 초기부터 축적한 양산 경험은 신규 고객 확보 과정에서 인증 기간과 양산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이다. 향후 물류로봇과 휴머노이드 등으로 생산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로봇 공급망 재편 역시 기회 요인이다. 미국의 중국산 로봇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OEM의 완제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탑스는 로봇 제품을 국내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글로벌 고객사의 조달 다변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로봇 산업에서 비중국 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생산기반을 보유한 인탑스의 반사수혜가 기대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비중- 기계구조물 중 외장재 비중은 2~5% 추정



자료: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중국 로봇과 인버터 수입 금지



자료: 언론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대형 FIM 양산체제로 전장사업 확대

대형 고부가 부품으로 믹스 개선

인탑스의 자동차부품 사업은 외형보다 이익 기여도가 높은 효자 사업부다. 최근 3년간 연결 매출액에서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6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 기여도는 43%에 달한다. 영업이익률도 2025년 6.6%에서 1H26 7.6%로 상승하며 전사 수익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 고부가 FIM 제품 비중 확대는 자동차부품 사업의 이익 기여도를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FIM(Film Insert Molding)은 디자인을 인쇄한 필름을 3차원으로 성형한 뒤 사출물과 일체화하는 공법이다. 하나의 공정에서 기능성 표면을 구현할 수 있어 도장·코팅 등 후공정을 줄일 수 있으며, 필름 설계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패턴, 투광·터치 기능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에서는 인포테인먼트와 디스플레이, 내·외장 디자인 부품에 활용되고 있다.

인탑스는 중국 텐진공장에서 FIM 공법을 적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생산해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약 170억원을 투자해 구미 4공장을 완공하며 국내 생산기반도 구축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구미공장은 가로 1.8m·세로 1.0m 규모의 세계 최대급 고압포밍기를 갖췄으며, 인쇄·커팅·성형·사출·출하에 이르는 주요 공정을 클린룸 내 자동화 설비로 처리할 수 있다.

FIM 공법 자체는 인탑스만의 독점기술은 아니다. 다만 제품이 대형화될수록 필름의 인쇄 왜곡과 오차, 성형 균일성 및 반복 정밀도를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대형 설비와 텐진공장의 양산 경험, 주요 공정의 일괄처리 능력이 경쟁력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그릴과 램프류,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고난도 전장부품으로 수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부품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가운데 고부가 FIM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 자동차부품 부문의 수익성이 추가 개선되며 전사 제품 믹스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장에서 확보한 대형 FIM 양산 역량을 로봇 외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품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로봇 역시 외장에 조명과 센서, 디스플레이 기능을 결합할 수 있어 기술적 적용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인탑스의 로봇용 FIM 수주나 적용 제품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사업계획보다는 확장 가능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미공장의 고객사와 수주금액, 생산능력도 미공개인 만큼 단기 실적 기여는 신규 수주와 고객사 인증, 초기 가동률 상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M(Film Insert Molding)



- 고객 가치**
- 무도장 기반 프리미엄 외관/촉감 (디자인 자유도 ↑)
 - Hidden pattern · 조명 등 기능 통합(부품/공정 수 ↓)
 - 대면적 부품 적용 확장(외장·광학·디스플레이)
 - 친환경적인 표면가식 공법

- 차별화**
- 표준 Recipe Pack : 필름·인쇄·포밍·사출·검사
 - 결합모드: 크랙/주름/박리/열록/변색 재발방지
 - 기능층 조합(Hidden-Hard Coating·고경도)
 - 개발-양산 데이터 루프 : 중요 변수/검사 기준 강화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Q26 Review

비수기에도 IT디바이스 흑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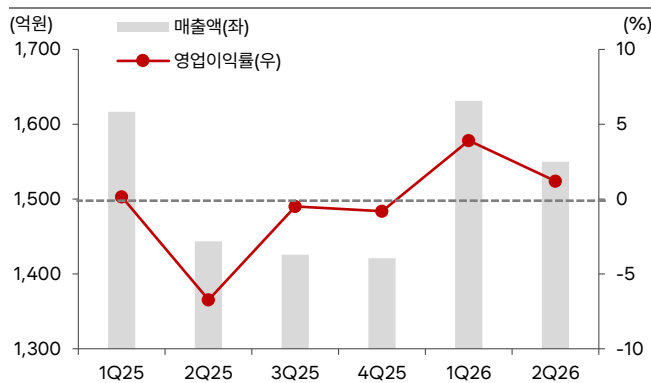
2분기 매출액은 1,550억원(YoY +7.3%, QoQ -5.0%), 영업이익은 19억원(YoY 흑자전환, QoQ -70.8%)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2%로 전년동기 대비 7.9%p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 2.7%p 하락했다. 당기순이익은 44억원으로 전년동기 100억원 적자에서 흑자전환했다.

IT디바이스 부문 매출액은 1,127억원(YoY +9.5%, 이하 YoY), 영업이익은 9억원으로 전년동기 106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전체 매출원가율도 96.6%에서 89.8%로 하락해 수출 정상화 효과가 이어졌다. 다만 IT디바이스 부문 영업이익률은 0.8%로 1분기 3.7%보다 낮아졌으며, 상반기 누적 가동률도 79%를 기록했다. 물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됐지만, 계절적 비수기에도 흑자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가전제품 부문은 매출액 167억원(+4.0%)과 영업손실 15억원을 기록해 적자 폭이 확대됐다. 자동차부품 부문은 매출액 227억원(+4.8%), 영업이익 16억원(-12.4%)을 기록했다. IT디바이스 부문의 실적 회복에도 가전제품의 적자와 자동차부품의 이익 감소가 전사 수익성 개선 폭을 제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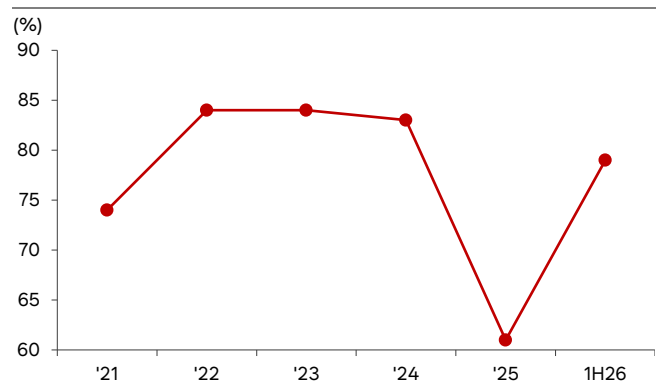
금융수익은 67억원, 금융비용은 12억원으로 순금융수익 55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31억원, 외환차익 23억원, 금융자산 평가이익 1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은 각각 2억원 내외로 대부분 상쇄돼 1분기와 달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산이익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순금융수익이 영업이익을 웃돌면서 당기순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가동률 추이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은 상반기 누적 기준

2026년 실적 전망

수율 정상화로 영업이익 흑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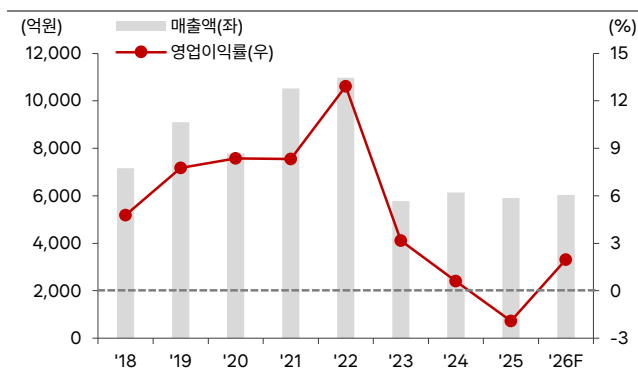
2026년 매출액은 6,032억원(YoY +2.1%), 영업이익은 118억원(YoY 흑자전환), 영업이익률은 2.0%(YoY +3.9%p)로 추정한다. 앞서 확인한 하노이 공장의 수율 회복을 반영해 매출원가율은 2025년 93.6%에서 90.8%로 하락하고, 매출총이익은 552억원(YoY +45.7%)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물량 감소를 반영해 수익성 회복 폭은 제한적으로 추정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83억원으로 연간 추정치의 약 70%를 기록했다. 연간 전망에는 하반기 스마트폰 생산물량 감소와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반영했으며,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35억원으로 추정한다. 수율 정상화 효과는 확인됐지만 계절적 비수기에는 낮은 가동률로 수익성이 상반기 대비 악화될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하반기에는 국내 웨어러블 로봇 개발사의 제품 위탁생산이 시작되고, 구미 4공장을 기반으로 대형 FIM 전장부품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고객사 인증과 초기 가동률 상승이 필요한 만큼 2026년 실적 기여는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본격적인 매출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 효과는 2027년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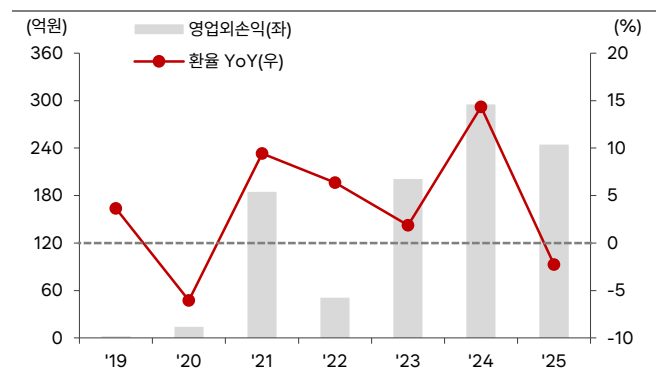
연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각각 265억원, 77억원으로 추정한다. 산업연구원이 하반기 원·달러 평균환율을 1,448원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외화환산이익은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순금융수익 188억원과 기타 영업외손익 등을 반영해 세전이익은 373억원(YoY +184.1%),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207억원(YoY +27.7%)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순이익에서 금융손익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본업의 수익성과 환율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외손익과 환율 증가율



자료: 산업연구원,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기말환율 기준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0,980	5,774	6,147	5,908	6,032
IT 디바이스	5,506	3,836	4,220	4,160	4,311
자동차 부품	1,026	846	890	904	924
가전제품 ASS'Y	879	882	807	691	677
영업이익	1,418	183	38	-113	118
영업이익률	12.9	3.2	0.6	-1.9	2.0
당기순이익(지배)	1,004	277	215	162	207
당기순이익률	9.1	4.8	3.5	2.7	3.4
YoY					
매출액	4.4	-47.4	6.5	-3.9	2.1
IT 디바이스	-15.6	-30.3	10.0	-1.4	3.6
자동차 부품	18.0	0.3	-8.5	-14.3	-2.0
가전제품 ASS'Y	3.9	-17.5	5.1	1.6	2.2
영업이익	61.9	-87.1	-79.3	적전	흑전
당기순이익(지배)	33.5	-72.4	-22.2	-24.7	27.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로봇 기대는 반영됐지만, 본격적인 재평가는 실적 확인이 필요

로봇 등 신사업 실적 가시화가 재평가의 열쇠

인탑스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 15.8배, P/B 0.5배에 거래되고 있다. 휴대폰 부품업체인 이랜텍과 KH바텍의 2026년 P/E가 각각 7.6배, 12.4배인 점을 고려하면 이익 기준으로는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 반면 P/B는 이랜텍 0.7배, KH바텍 0.9배를 하회한다. 인탑스의 2026년 예상 ROE가 3.1%로 경쟁사(이랜텍 9.7%, 한라캐스트 6.9%, KH바텍 7.9%) 대비 낮고, 순이익에서 금융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본업의 이익창출력에 대한 평가가 낮은 점이 자산가치 할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인탑스는 여전히 휴대폰 케이스가 주력인 기업이지만, 서빙·웨어러블 로봇의 양산 경험과 턴키 EMS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로봇 관련 업체로도 일부 인식되고 있다. 로봇 부품업체로 분류되는 한라캐스트가 2026년 P/E 52.7배, P/B 3.5배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인탑스에 반영된 로봇 프리미엄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다만 현재 로봇 사업의 매출 및 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은 만큼 한라캐스트와 동일한 수준의 멀티플을 적용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

결국 현재 주가는 휴대폰 부품업체로서의 낮은 성장성과 과거 EB 발행 등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로 재평가가 제한되고 있으며, 로봇 업체로서의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 향후 로봇·드론 위탁생산과 FIM 전장부품의 신규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금융수익이 아닌 본업의 영업이익의 성장이 확인될 경우 밸류에이션 할인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P/B 0.5배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지만, 추가적인 멀티플 상승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안정과 로봇 매출의 본격적인 가시화가 필요하다.

Peer Valuation Table

자수 및 기업명	종가 (원)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ROE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인탑스	19,780	326	591	603	-11	12	21.3	15.8	0.5	0.5	2.5	3.1
모베이스	3,650	84	1,371	N/A	42	N/A	6.4	N/A	0.2	N/A	3.4	N/A
이랜텍	8,030	203	753	875	43	54	9.9	7.6	0.8	0.7	9.0	9.7
한라캐스트	10,830	395	156	187	10	12	165.4	52.7	6.7	3.5	6.5	6.9
KH바텍	11,770	279	425	438	32	32	13.0	12.4	0.9	0.9	7.6	7.9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EB 논란 이후 신뢰 회복 여부 주목

주주환원 강화에도 남은 조사 불확실성

인탑스는 2025년 자사주(63만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130억원 규모 교환사채(EB)의 콜옵션 구조를 둘러싸고 주가 상승 억제 및 승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후 김근하 대표가 사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기존 발행주식의 약 8.5%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했다. 논란이 된 콜옵션도 회사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다만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교환대상 자사주 63만792주와 콜옵션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조사 결과와 콜옵션 처리,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밸류에이션 할인이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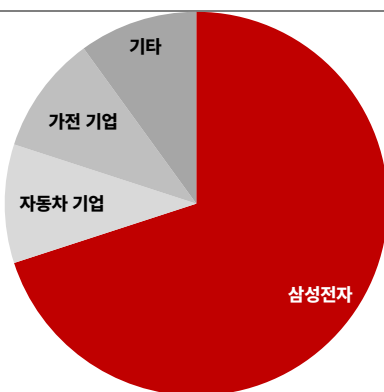
2 높은 고객사 의존도

본업 변동성

인탑스는 주력인 IT디바이스 사업의 매출이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생산계획에 크게 좌우된다. 특정 고객사와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갤럭시 A·M 시리즈의 판매 부진이나 생산물량 조정, 공급사 간 물량 재배분이 발생하면 베트남 생산법인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특히 고정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 특성상 비수기 물량 감소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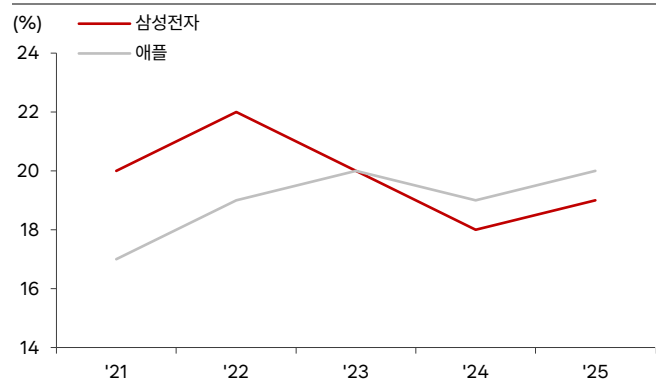
생산 수율도 주요 변수다. 2025년 하노이 공장은 스마트폰 모델 변경과 고객사의 품질검사 고도화 과정에서 수율이 저하되며 적자를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공정 안정화가 확인됐으나, 향후 신규 모델 전환이나 검사 기준 강화 과정에서 수율 문제가 재발하면 원가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는 약 70%



자료: 인탑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애플,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0,980	5,774	6,147	5,908	6,032
증가율(%)	4.4	-47.4	6.5	-3.9	2.1
매출원가	8,916	5,078	5,593	5,529	5,479
매출원가율(%)	81.2	87.9	91.0	93.6	90.8
매출총이익	2,064	696	553	379	552
매출이익률(%)	18.8	12.1	9.0	6.4	9.2
판매관리비	646	513	515	492	434
판매비율(%)	5.9	8.9	8.4	8.3	7.2
EBITDA	1,626	368	225	73	302
EBITDA 이익률(%)	14.8	6.4	3.7	1.2	5.0
증가율(%)	52.2	-77.3	-38.9	-67.4	311.0
영업이익	1,418	183	38	-113	118
영업이익률(%)	12.9	3.2	0.6	-1.9	2.0
증가율(%)	61.9	-87.1	-79.3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53	184	299	259	270
금융수익	372	320	394	270	265
금융비용	168	66	77	93	77
기타영업외손익	-151	-71	-18	82	82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3	17	-4	-14	-14
세전계속사업이익	1,468	384	333	131	373
증가율(%)	38.8	-70.8	-21.6	-61.0	184.1
법인세비용	290	45	103	50	93
계속사업이익	1,178	342	234	82	280
중단사업이익	4	46	4	0	0
당기순이익	1,182	384	234	82	280
당기순이익률(%)	10.8	6.7	3.8	1.4	4.6
증가율(%)	46.3	-67.5	-39.2	-65.1	243.1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1,004	277	215	162	207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59	543	458	86	311
당기순이익	1,182	384	234	82	280
유형자산 상각비	200	178	181	182	180
무형자산 상각비	8	7	6	4	4
외환손익	76	9	7	16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59	207	58	-11	-3
기타	134	-242	-28	-187	-15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02	-1,060	-696	234	-128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4,556	2,407	2,408	2,730	5
유형자산의 감소	12	92	57	18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66	-188	-308	-154	-100
기타	-5,404	-3,371	-2,853	-2,360	-3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30	-259	-157	-168	-34
차입금의 증가(감소)	-63	-37	99	-161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13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63	-191	-192	-144	-34
기타	-104	-31	-64	7	0
기타현금흐름	30	-45	42	-19	120
현금의증가(감소)	257	-821	-353	133	270
기초현금	1,683	1,940	1,119	766	899
기말현금	1,940	1,119	766	899	1,169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4,893	4,259	3,845	4,385	4,726
현금성자산	1,940	1,119	766	899	1,169
단기투자자산	1,592	1,983	1,947	2,345	2,393
매출채권	623	616	542	679	693
재고자산	331	240	323	225	229
기타유동자산	407	302	267	237	242
비유동자산	3,811	4,334	5,161	4,341	4,267
유형자산	2,050	1,873	2,039	1,920	1,841
무형자산	27	24	20	18	14
투자자산	959	1,571	1,264	747	756
기타비유동자산	775	866	1,838	1,656	1,656
자산총계	8,705	8,593	9,007	8,726	8,993
유동부채	1,262	979	1,161	909	926
단기차입금	194	157	276	100	100
매입채무	542	467	461	478	488
기타유동부채	526	355	424	331	338
비유동부채	130	129	127	253	255
사채	0	0	0	100	10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30	129	127	153	155
부채총계	1,392	1,109	1,289	1,162	1,181
자배주주지분	6,166	6,315	6,585	6,672	6,847
자본금	86	86	86	86	86
자본잉여금	149	149	149	149	149
자본조정 등	-292	-315	-368	-359	-35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01	120	266	199	199
이익잉여금	6,122	6,276	6,452	6,597	6,772
자본총계	7,313	7,485	7,718	7,564	7,81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4.8	16.8	13.3	21.3	15.8
P/B(배)	0.8	0.7	0.4	0.5	0.5
P/S(배)	0.4	0.8	0.5	0.6	0.5
EV/EBITDA(배)	1.6	7.9	7.1	18.5	3.1
배당수익률(%)	3.1	0.9	1.2	1.0	1.1
EPS(원)	5,836	1,608	1,251	942	1,249
BPS(원)	35,851	36,718	38,287	38,791	43,494
SPS(원)	63,835	33,568	35,736	34,348	36,467
DPS(원)	860	235	200	200	220
수익성(%)					
ROE	17.4	4.4	3.3	2.4	3.1
ROA	14.0	4.4	2.7	0.9	3.2
ROIC	41.9	7.3	1.3	-4.1	4.0
안정성(%)					
유동비율	387.7	434.9	331.1	482.1	510.2
부채비율	19.0	14.8	16.7	15.4	15.1
순차입금비율	-45.2	-39.0	-31.0	-39.4	-42.2
이자보상배율	337.5	23.4	3.5	-7.9	8.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3	0.7	0.7	0.7	0.7
매출채권회전율	12.6	9.3	10.6	9.7	8.8
재고자산회전율	27.9	20.2	21.8	21.6	26.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인탑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19	인탑스-케이스를 넘어 로봇을 조립하다
2024.04.29	인탑스-실적이 바닥을 지났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